

# 참여정부 출신고교별 고위공무원수 광주일고 44명·광주고 28명

### 1,171명 분석...경기고 69명·서울대 317명 최다

참여정부 고위공무원단의 출신 고교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영남과 호남 출신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고교는 경기고,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가장 많았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고위공무원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남지역 고교 출신자가 전체의 29.7%인 348명으로 나타났고, 호남지역 고교 출신은 전체의 20.15%인 23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학교명 중복으로 확인 불가능한 98명을 제외한 고위공무원단 1천1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이 가운데 서울지역 고교 출신이 33.56%인 393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지역 고교 출신은 전체의 15.28%인 179명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부산·울산·경남지역 고교 출신이 14.43%인 169명으로 나타났고 광주·전남지역 고교 출신은 13.32% (156명)로 네 번째로 많았다.

대전·충남·충북지역 고교 출신은 9.06%인 106명, 전북지역 고교 출신은 6.83% 80명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강원 3.50% (41명), 인천 1.79% (21명), 경기

1.37% (16명), 제주 0.85% (10명) 등으로 나타났다. 출신 고교별로는 경기고 출신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고 48명(3.7%) ▲광주일고 44명(3.4%) ▲서울고 35명(2.7%) ▲대전고 34명(2.6%) ▲경북고 33명(2.5%) ▲전주고 30명(2.3%) ▲광주고 28명(2.2%) ▲검정고시 27명(2.1%) ▲중앙고 26명(2.0%) 순으로 집계됐다.

5명 이상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배출한 광주·전남지역 고등학교는 광주일고와 광주고를 제외하고 고도 살레시오고(8명), 순천고(8명), 조대부고(6명), 목포고(5명), 광주상고(5명)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을 졸업한 고위 공직자 1천265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317명이었고 ▲고려대 106명(8.3%) ▲연세대 94명(7.4%) ▲성균관대 92명(7.3%) ▲육군사관학교 79명(6.2%) ▲한양대 71명(5.6%) ▲방송통신대 63명(5.0%) ▲경북대 38명(3.0%) ▲부산대 36명(2.8%) 등의 순서였다. 전남대 출신 고위공무원은 25명으로 한국외대(29명)에 이어 1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도입된 행정부 3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에는 검사, 군인, 국가정보원 등 특정직과 외무공무원 등은 편입되지 않았다.

■고위 공무원 출신 고교·대학별 순위

순위	고교	인원 (비율%)	순위	대학	인원 (비율%)
1	경기고	69(4.0)	1	서울대	317(25)
2	경북고	48(3.7)	2	고려대	106(8.4)
3	광주일고	44(3.4)	3	연세대	94(7.4)
4	서울고	35(2.7)	4	성균관대	92(7.3)
5	대전고	34(2.6)	5	육사	79(6.2)
6	경북고	33(2.5)	6	한양대	71(5.6)
7	전주고	30(2.3)	7	방송통신대	63(5.0)
8	광주고	28(2.2)	8	경북대	38(3.0)
9	검정고시	27(2.1)	9	부산대	36(2.8)
10	중앙고	26(2.0)	10	영남대	36(2.8)
			11	한국외대	29(2.3)
			12	전남대	25(2.0)

※순천고(11명), 광주 살레시오고(8명), 조대부고(6명), 목포고(5명), 광 주상고(5명)

▲연세대 94명(7.4%) ▲성균관대 92명(7.3%) ▲육군사관학교 79명(6.2%) ▲한양대 71명(5.6%) ▲방송통신대 63명(5.0%) ▲경북대 38명(3.0%) ▲부산대 36명(2.8%) 등의 순서였다. 전남대 출신 고위공무원은 25명으로 한국외대(29명)에 이어 1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도입된 행정부 3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에는 검사, 군인, 국가정보원 등 특정직과 외무공무원 등은 편입되지 않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현장과 시각

### 개미들, 본업에 충실하라



장필수  
경제부 차장

얼마전 대학 후배로부터 전화가 왔다. 코스피지수가 1,700선을 돌파하면서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할때다.

“선배, 요즘 S건설 주식이 좋던데 사도 될까요?”

이 후배는 광주의 한 중견기업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다. 당돌하기도 하고 느닷없는 전화에 순간 뒀라 얘기해야 할지 몰랐

지만 “차라리 얼종 대표 우량주를 사라”고 충고해 줄 수 밖에 없었다.

요즘 주식열풍이 심상치 않다. 정확히 8년만이다. ‘IT버블’이 붕괴되기 직전인 1999년말과 2000년초의 ‘주식광풍(狂風)’과는 분명 다르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들끓고, 만나는 사람마다 주식투자로 애기꽃을 피우는 것을 보면서 8년전 그때의 모습이 오버랩된다.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증권사 객장은 개미들로 붐볐고 이들의 묻지마 투자는 불과 1년만에 대부분 강동계좌로 끝을 맺었다.

지금과 그때와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당시에는 밀레니엄을 앞두고 IT 신기술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묻지마 투자를 했다면 지금은 넘쳐나는 돈의 힘(유동성)과 기업실적을 바탕으로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일부 개미들의 묻지마 투자 행태가 되살아 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주위를 보면 개미들은 추가 상승에 안달이 나 있다.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그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꽤 있다. 심지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이 증권사 직원에게 돈을 맡기는 경우도 많다. 은행에 맡겨 둔 적금의 만기가 안 됐는데도 이자 손해를 무릅쓰고 통장을 해약해 증권사 객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부동산 시장으로 쓸렸던 자금이 ‘세금폭탄’을 피해 주식시장으로 몰린다는 해석,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수조원대의 시중 유동자금이 증시 활황세에 불을 붙이고 있다는 해석들이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미들이 묻지마 투자를 해도 된다는 건 결코 아니다.

기업에 대해 잘 알고서도 돈을 잃기 쉬운게 주식 시장이다. 이 때문에 벤자민 그레이엄 등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는 모든 것을 투기’라고 규정했다.

강창희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장의 말을 후배에게 전해주고 싶다. 30년 넘게 주식시장에 몸담고 최근에는 증권관련 1천회 강연기록을 세운 강소장도 봄소 깨달은 투자의 진리 제1계명으로 ‘본업(직장)에 충실하라’고 강조했다는 사실을...

/ bungy@kwangju.co.kr

## BDA 해법 도출 급물살

<방코델타아시아>

### 한·미·중 외교 전화 협의...G8 정상회담서 가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부장관은 지난 4일과 5일 밤 두차례 전화통화하고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해결과 관련,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속히 해결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6일 전했다.

또 라이스 국무장관은 방한중인 양제츠 중국 외교 부장관과 전화통화하고 BDA 문제 해결 방안을 긴밀히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중 외교수뇌부의 협의에서는 최근 미국이 제시한 ‘BDA 경영진 교체’를 전제로 한 BDA 제제 해제’ 방안과 러시아가 새롭게 제시한 방안이 대해 중국 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최근 미국과의 협의 끝에 ‘미 당국이 러시아 금융기관들에 대해 제재하지 않겠다는 서면보장을 한다면 BDA 자금을 증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BDA 해법에 대한 중국측의 반응이 독일 하일리겐타임에서 6~8일 열리는 주요선진 8개국(G-8) 연례 정상회담 기간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달 중순까지 BDA 문제가 해결되고 2.13 합의 이행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북수의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미국은 여러 방안 가운데 현실적으로 관련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6차회담 참가국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했다고 한 외교소식통은 전했다.

/연합뉴스



고 윤영하 소령 등 2002년 서해교전에서 전사한 6명의 이름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名碑)에 새겨졌다. 서해교전 전사자는 고 윤 소령을 비롯해 한상국 중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등이다.

/연합뉴스

### 서해교전 전몰자 6명·윤장호 하사 ‘전사자 명비’ 등재

고(故) 윤영하 소령 등 2002년 서해교전에서 전사한 6명과 지난 2월 아프가니스탄에서 폭탄테러로 희생된 윤장호 하사의 이름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名碑)에 새겨졌다.

전쟁기념관 관계자는 6일 “최근 전쟁기념관 중앙 회랑 벽면에 있는 전사자 명비에 서해교전 전사자 6명과 윤장호 하사의 이름을 새겼다”고 말했다.

### 日, ‘목선 탈북’ 4명 입국관리센터 이송

지난 2일 낚은 소형 목선을 타고 일본에 도착해 일본 경찰 등 당국의 조사를 받아오던 탈북 가족 4명이 6일 이바라키(茨城)현 우시구(牛久)시에 있는 입국관리국 보호 시설로 이송된다. 일본 법무성은 이에 앞서 이들 4명이 신청한 상륙 허가를 인정했다.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는 이들 가족은 이에 따라 한

이 관계자는 서해교전 발발 5년 만에 전사자들의 이름이 명비에 새겨진 것에 대해 “매번 전사자들의 이름을 올릴 수 없어 아모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사자 명비에는 창군기와 6·25전쟁, 월남전, 대(對) 침투작전 등에서 전사한 국군과 경찰 17만592명, 유엔군 3만7천645명의 이름이 기록돼 있다.

/연합뉴스

국으로 인도될 때까지 이 시설에서 일시 체류하게 된다. 상륙허가를 받음에 따라 최장 6개월간 체류가 가능하다.

부부와 아들 형제인 이들 가족은 지난달 28일 짙은 안개를 틈타 여선을 타고 청진항을 출발, 2일 아오모리(靑森)현 후카우라(深浦)항에 도착한 뒤 현지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탈출 동거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아 왔다.

/연합뉴스

## 美, FTA 추가협상 공식제의를 할 듯

### 주말이나 내주초...노동·환경분야 유력

미국 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빠른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추가협상을 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6일 “아직 미국으로부터 추가협상에 대한 요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미 의회와 행정부의 신통상정책 합의 내용을 법 조문화하는 작업이 막바지 단계이고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 회의도 끝나 미국의 추가협상의 요구가 공식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관측했다.

지난 4일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을 방문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추가협상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져 추가협상 제의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추가협상에 대한 미국의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미국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언제 추가협의를 요청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 FTA 협정문의 법률검토를 위한 회의에 참가했던 대표단이 8일께 귀국한 이후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 우리 측에 추가협상 요청과 함께 논의의 대상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합뉴스

SASA & 톰과 제리의 새로운 이름 "SASA"

도레미 시리즈 - 미래의 유지를 위한 유망품

## 키워주세요!!

내 아이의 꿈을 키워주세요!

내 아이의 개성에 맞는 가구, 침구, 소품까지~

자녀방 전문가 SASA

홈페이지: www.sasakid.co.kr  
문의전화: 1588-4434/4405